兒童과 靑少年의 憂鬱性向 및 歸因樣式과 學業成就

Children's and Adolescents' Depression, Attributional Style and Academic Achivement.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소비자·아동학과
대학원 한 유 진
부교수 유 안 진

Dept.of Cosumer & Child Sudies Seoul National Univ.
Graduate School Student : Han Eugene
Associate Prof. : Yoo An-Jin

〈목 차〉

Ⅰ. 문제제기
Ⅱ. 이론적 배경 및 관련연구의 고찰
Ⅲ. 연구문제
참고문헌
Ⅳ. 연구방법 및 절차
Ⅴ. 연구결과 및 해석
Ⅵ. 결론 및 논의

〈Abstract〉

The subjects were 574 eleven- and fourteen- year-olds enrolled in elementary and junior high school in seoul. To measure subjects' depression and attributional style, the childrdn's Depression Inventory(CDI) and the Children's Attributional Style Questionnaire(CASQ) were used. The result are as follows. Children's and adolescents' depression varied across ages. Adolescents' depression score was higher than that of children's. There was no sex difference in Children's and adolescents' depression. In the children's and adolescents' depression,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maternal educational level. That is, the lower maternal educational level, the higher children's and adolescents' depression score. As predicted by the reformulated learned helplessness theory,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high levels of depression score were more likely to attribute bad events to internal, stable, global causes and good events to external, unstable, specific causes. Subject who were more depressed had significantly lower academic achievement scores than subject who were less depressed.

Ⅰ. 問題提起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서적 및 심리적 변화가 심한 시기로써 균형있는 성장과 발달이 필요하고 성숙한 인간으로서의 주체성을 확립해야 하는 시기이다. 그러나 성취해야할 발달과업이 많은데 비해 인지적으로 미성숙하며 신체의 급격한 변화에 비해 정서 및 심리적 발달은 미숙단계에 머물고 있으므로 내적 갈등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다양한 내외적 변화에 대처하는데 있어 우울, 불안 및 좌절과 같은 정서적 변화로 반응하게 된다. 최근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정서 및 행동문제 연구에서 우울증상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같은 연령의 미국의 아동 및 청소년과 비교할때 모든 연령에서 현격히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내어(이혜련, 오경자, 임양화, 1991) 우리나라 아동과 청소년이 가장 보편적으로 겪고있는 심리적 어려움이 우울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동과 청소년의 우울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진하였다. 소수의 관련 연구들도 우울증의 임상적인 행동특성이나 자살행동, 행동장애, 정서장애와 같은 정서적 증상이나 행동적 증상를 다루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특히 우울이 인지에 미치는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 시기의 우울 성향은 가정생활과 학교생활에서의 적응과 자살, 문제행동, 성인이 된 후의 정서 장애와 높은 상관이 보고되고 있으므로 이에 관련된 변인 연구가 필요하다.

우울과 인지에 관한 연구로 Abramson, Seligman과 Teasdale(1978)은 귀인 개념을 도입하여 통제불가능한 사건이나 실패를 내적이고, 안정적이며, 일반적인 원인으로 귀인하며 성공을 외적이고 불안정적이며,특정적인 원인으로 귀인하는 것은 자존심의 손상을 초래하며 우울증 증상의 일반화와 만성화를 촉진시킨다는 우울 귀인 양식 이라는 개념을 발전시켰다. Abramson(1978)의 연구 이후 우울과 귀인 관계에 관한 많은 경험적 연구들이 이루어졌으나 거의 대부분이 성인을 대상으로 특히 대학생 표본을 이용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최근에 와서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행해지고는 있으나 성인 연구에 비하면 양과 질적인 면 모두에서 너무나 부족하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우울 귀인 양식에 대한 연구는 극히 소수일 뿐 아니라 혼합된 연구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더우기 우리나라 청소년의 우울과 귀인양식과의 관계를 탐색한 연구는 없으므로 우선, 우리나라 아동과 청소년의 우울성향과 귀인양식과의 관계를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아동과 청소년에게 학업성취는 그 시기에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성취활동으로 선행연구들은 학업성취와 우울과의 관련성을 밝히고 있다. 우울한 아동은 인지적 영역에서 자신이 무능하다고 지각하며 (Asarnow,Carson & Guthrie, 1987) 도전적인 학교과제에 대해서 무력감을 많이 나타낸다(Kaslow,Rehm & Siegel, 1984). 실험 상황에서, 우울한 사람이 작업과제의 성과에 대해 부적응적인 귀인을 할 뿐 아니라, 우울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과제의 실제 수행력도 낮음을 알 수 있었다(Kuiper, 1978). 이는 우울한 사람의 귀인 양식이 성취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므로 우울 귀인양식과 실제 적응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학교에서의 성취를 측정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변인인 학업성취와 우울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수정 학습된 무력감 이론에 근거하여 아동 및 청소년의 우울성향과 귀인 양식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우울성향에 따른 학업성취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우울이 연령, 성별 및 母의 교육수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Ⅱ. 理論的 背景 및 關聯硏究의 考察

1. 憂鬱性向의 發達

1) 兒童과 靑少年의 憂鬱性向

언어와 인지가 발달하며 상징적 놀이(symbolic play)의 급속한 발달로 인하여 불행감 등의 감정이 일정기간동안 지속될 수 있는 아동기에서의 우울은 많은 수가 보고되고 있다. 임상적 아동들을 대상으

로 연구한 결과 표집된 아동의 27-52%가 우울을 나타내었고(Asarnow & Carlson, 1985) 정상 아동을 대상으로한 연구에서는 표집된 아동의 10-23%가 가볍거나 심한 우울을 나타내었다. 또한 많은 연구들이 우울증으로 인한 인지적 손상이 아동에게도 나타남을 보였다. 우울한 성인과 유사하게 4,5학년의 우울한 아동은 주어진 과제에 대해 낮은 문제해결력을 보였고(Kaslow, Tanenbaum, Abramson, Peterson & Seligman, 1983 ; Seligman et al, 1984) 그들 자신과 미래에 대해 부정적인 기대를 하는 경향이 있었다(Kazdin et al, 1983).

우울은 청소년에게는 더 흔한 증세의 하나이다. Rutter(1983)는 10세 아동의 경우 10-12%정도가 가벼운 우울증상을 보인 반면 14-15세에는 40%정도가 그런 증상을 보였다고 보고하고 있어 우울증상이 청소년층에서는 상당히 보편적으로 경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2) 關聯變數의 考察

① 年齡과 憂鬱性向

우울 증상의 표현에는 연령과 관련된 변화가 특징적이다.아동기에서 사춘기에 들어서면서 환경적 변화의 압력과 인지능력의 발달은 우울을 급격히 증가시킨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우울은 아동기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이혜련 외,1991) 아동기나 성인기 보다 청소년기가 가장 높은 우울 빈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性別과 憂鬱性向

우울의 성차를 살펴본 연구들은 생애 초기에는 여아보다 남아가 우울성향의 우세를 나타내지만(Nolen-Hoeksema, Seligman, Girgus, 1989) 임상과 비 임상집단의 연구에서, 13살 이후에는 소년보다 소녀들 사이에서 우울이 더 보편적이며 성인이 되면 여자의 비율이 훨씬 높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Weissman & Klerman, 1977). 그러나 이와 일치하지 않는 연구결과도 있다. 우리나라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우울성향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김선경,1988).

③ 母의 敎育水準과 憂鬱性向

우울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에 대한 연구들은, 가정환경 중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와 밀접한 관계를 보고하고있다.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Jacobson, Fasman, & DiMascio, 1975) 우울증 환자 집단은 그들의 부모가 애정 표현은 적고 자녀의 활동에 많은 참견과 간섭을 했으며 독립하고 싶은 희망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였다. 또한 엄격한 통제를 하며 통제를 할 때에도 죄의식의 유도와 같은 부정적인 방법을 사용했다고 회고하였다.

정상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선경, 1988)의 결과도 이와 유사하였다. 그런데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우울성향과의 관계를 살펴본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부모의 양육태도를 직접 조사하지 않고 자녀의 지각이나 회상에 의존했다는 연구방법상의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2. 兒童과 靑少年의 憂鬱과 歸因樣式

성인의 우울과 귀인양식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행해졌으나, 아동의 우울과 귀인양식과의 관계를 밝히려는 연구는 매우 소수이다. 초기에 아동을 대상으로한 연구들은 우울한 아동이, 우울한 성인과 같이 역기능적인 귀인양식을 보이는지에 관심을 두었다.

Seligman과 그의 동료(1984)들은 8-13세 아동 96명을 대상으로, 6개월 간격으로 2회에 걸쳐서, 아동우울 검사(CDI)와 아동용 귀인 질문지(CASQ)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우울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아동집단이 낮은 점수를 받은 아동 집단보다 부정적 사건에 대한 귀인 질문에서 그 원인을 더욱 내적(internal), 안정적(stable), 일반적(global)으로 귀인한다고 보고 하였다. 또한 6개월후에, 실시한 경우에서도 같은 결과를 얻게됨으로써, 우울한 아동의 귀인 형태가 비교적 지속적임을 보여주었다.

Kaslow와 그의 동료(1988)들은 8-12살 사이의 우울한 아동과 우울하지 않은 아동간의 우울 귀인양식(depressive attributional style)이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여 Seligman(1984)등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성취과제의 귀인에 대한 성인 연구에서는 우울한 성인이 부정적인 성과에 대해 덜 이기적으로 귀인한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으나 아동을 대상으로한 연구에서는 결과가 일관적이지 못하다. 임양화(1989)는 국민학교 5-6학년 아동들에게 차례맞추기 과제를 실시하게 한 다음 피이드백으로 성공이나 실패를 조작하였다. 성공 및 실패에 대한 귀인을 하게 한 결과, 우울한 아동들은 자신의 실패를 내적이고 안정적인 요인에 귀인하는 한편 자신의 성공을 외적인 요인에 귀인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는 달리 유사한 연령의 아동을 대상으로한, Ward와 Friedlander 그리고 Silverman(1987)의 연구에서는 우울한 아동과 우울하지 않은 아동들이 글자수수께끼 과제의 성공이나 실패에 대한 귀인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위의 연구결과들은 우울한 아동과 청소년도 우울한 성인처럼 우울 귀인양식을 지니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나 행해진 연구들도 몇 편에 불과하고 결과도 일관적이지 못하다. 또한 적은 표본수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우울한 피험자의 확보와 결과의 일반화가 선행연구들의 제한점으로 지적될수 있으며 발달단계상 상대적으로 높은 우울증을 보고하는 정상 청소년 집단에 대한 연구가 존재하지 않아 큰 표본을 이용한 아동과 청소년의 우울과 귀인양식의 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3. 憂鬱과 學業成就

학업성취는 아동과 청소년이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성취활동이다.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매우 다양한데 그 중에서 우울성향은 인지적 증상으로 학습곤란이 나타난다는 점을 생각할 때 아동과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리라고 추론할 수 있다.

임상 집단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자존감, 학업에 초점을 둔 인지영역, 친구 관계에 초점을 둔 사회영역, 운동영역에 있어 자신의 능력에 대한 평가와 우울과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인지적 영역에서는 자신이 유능하지 못하다고 지각했으나 사회영역과 우울영역에서는 우울하지 않은 아동과 차이가 없었다(Asarnow et al. 1987). 이러한 결과는 우울한 아동들은 우울하지 않은 아동보다 생활 영역 중에서 학업과 관련된 인지영역의 능력을 가장 낮게 지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도구적 행동의 감소는 우울의 주요 증상 중의 하나이며 집중곤란 또한 우울의 보편적인 증상이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87). 이러한 우울의 증상들은 학업성취에 손상을 입힐 수 있다. 우울증으로 진단받은 심한 우울증을 가진 아동들은 학교에서 낮은 성취활동을 보였고 도전적인 학교 과제에 대해 무력감을 나타내었다(Kaslow,Rehm, & Siegel,1984). 또한 우울증 아동의 학업수행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우울이 회복됨에 따라 사라졌다(Puig-Antich et al, 1985).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실제 학업성취보다는 학업성취와 관련된 학업태도나, 학교생활 적응의 문제점등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Puig-Antich et al, 1985) 학업성취 점수를 변수로 다룬 연구(Tesiny et al, 1980)들도 읽기와 산수 두가지 영역에 대한 평가만을 학업성취로 채택하고 있어 전과목에 대한 학업성취를 다룬 연구가 부족하다. 또한 학업성취 평가가 교사의 평가에 의해 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객관성의 여부가 제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Ⅲ. 研究問題

1. 研究問題

〈연구문제 1〉 아동과 청소년의 憂鬱性向은 年齡, 性別, 母의 敎育水準에 따라 유의한 差異가 있는가?

〈연구문제 2〉 歸因樣式은 아동과 청소년의 憂鬱性向에 따라 어떠한 差異를 보일 것인가?

가설 2-1. 아동과 청소년은 憂鬱할수록 失敗事件에는 內的으로, 成功事件에는 外的으로 歸因할것이다(귀인의 내외성 차원).

가설 2-2. 아동과 청소년은 憂鬱할수록 失敗事件에는 安定的으로, 成功事件에는 不安定的

으로 歸因할 것이다(귀인의 안정성 차원).

가설 2-3. 아동과 청소년은 憂鬱할수록 失敗事件에는 一般的으로, 成功事件에는 特定的으로 歸因할 것이다(귀인의 일반성 차원).

〈연구문제 3〉 學業成就는 아동과 청소년의 憂鬱性向에 따라 어떠한 差異를 보일 것인가?

Ⅳ. 研究方法 및 節次

1. 調査 對象

이 연구에서는 사춘기를 겪는 시기에 초점을 맞추어 우울의 발달상의 변화를 파악하려 했으므로, 사춘기 시작 직전인 국민학교 5학년과 사춘기에 진입한 중학교 2학년의 남녀학생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중학교의 경우, 동일한 내용에 대한 학습평가의 결과를 보기위해 남녀공학을 선정하였다.

대상은 가정환경 수준이 편중되지 않도록 지역을 달리해 표집하였다. 이에따라 관악구의 N국민학교, 서초구의 B국민학교, 마포구의 K국민학교, 송파구의 O중학교 및 강남구의 K중학교에서 국민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각 학교에서 1-3학급씩을 임의로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회수된 610부의 질문지 중 편부모 가정의 학생과 응답이 부실한 학생, 전학와서 1학기 성적이 없는 학생을 제외한 총 574명의 응답을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표 Ⅳ-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N=574

변 수	집 단	빈 도 (%)
年 齡	국민학교 5학년	283 (49.3)
	중 학 교 2학년	291 (50.7)
性 別	남 학 생	292 (50.9)
	여 학 생	282 (49.1)
母의學歷	중졸이하	116 (20.3)
	고 졸	234 (40.7)
	대졸이상	204 (35.5)
	무 응 답	20 (3.5)
母의職業	전업주부	368 (64.1)
	전문직 관리직	12 (2.1)
	전문기술직 사무직	51 (8.8)
	판매서비스직	79 (13.8)
	생산직	47 (3.2)
	무응답	17 (3.0)

2. 測定道具의 構成

1) 우울 검사(CDI :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Kovacs(1981)가 구성한 '아동용 우울검사'를 번역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우울을 측정하였다. 27개의 자기 - 보고 항목은 우울의 주요 증상을 나타내는 우울정서, 행동장애, 흥미상실, 자기비하, 생리적 증상의 5가지 하위 범주로 나눌수 있다. 응답자는 각 항목에서 3개의 서술문중 지난 2주일 동안의 자신을 가장 잘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서술문 1개를 골라 표시한다. 예를들어 '나는 가끔 슬프다'(0점), '나는 자주 슬프다'(1점), '나는 항상 슬프다'(2점) 문항중 하나에 응답한다. 반응은 우울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0-2점까지이며 응답자 각각의 우울점수는 0-54점 사이에 분포가 가능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함을 가리킨다.

문항의 타당도는 지도 교수 및 아동학 전공자 3인에 의해 검증되었으며, Cronbach의 α 계수를 이용하

〈표 Ⅳ-2〉 우울검사 질문지의 구성

우 울 증 상	문항수
우울정서 (Dysphoric mood symptoms) - 우울한 기분, 외로움	5
행동장애 (Behavioral disturbance) - 공격적 행동,대인관계 장애	7
흥미상실 (Anhedonia) - 일상에서의 흥미나 즐거움 상실	7
자기 비하 (Self-deprecation symptom) - 무가치감이나 부정적인 자아상	4
생리적 증상 (Physiological symptoms) - 불면, 식욕감퇴, 피로감	4

여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신뢰도 계수는 0.81로 나타났다.

2) 귀인양식 측정도구의 구성

본 연구의 귀인 양식 질문지는 Kaslow(1978)와 그의 동료들에 의해 개발된 귀인양식 질문지(CASQ : Childrdn's Attributional Style Questionnaire)를 기초로 하고 오혜영(1981)의 귀인양식 질문지를 참조하여 연구자가 연구목적에 맞게 문항을 재구성하여 만들었다.

CASQ는 특정 사건에 대한 귀인이 아니라 전반적인 개인의 귀인 유형을 측정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CASQ는 48항목으로 되어있는 선택형 척도로서 각 항목은 하나의 가상적인 상황과 그 사건이 발생한 이유에 대한 두가지의 가능한 설명을 제시한다. 응답자들은 각 문항이 묘사하는 사건이 자신에게 일어났다고 상상하도록 지시받은 다음, 두가지 설명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있다. 48개의 상황은 24개의 긍정적 상황과 24개의 부정적 상황으로 구성되어있고 긍정적 상황에는 귀인의 3차원(내외성, 안정성, 일반성)을 나타내는 문항이 8개씩 존재하여 한 응답자의 자료에서 6개의 기본척도가 추출된다. 또한 문항의 내용은 학업성적, 교사와의 관계, 기타 학교에서의 성취를 포함하는 학업성취에 관한 문항이 24문항, 친구관계, 가족관계를 포함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관한 문항이 24문항으로 되어있다.

이와 같이 구성된 귀인 양식 척도는 응답자가 내적, 안정적 일반적인 원인을 나타내는 문항에 답했을때는 (1점), 외적, 불안정적, 특정적인 원인을 나타내는 문항에 답했을 때는 (0점)을 주도록 하였다. 따라서, 각 차원당 0점에서 8점까지 분포한다. 이 질문지의 타당도는 지도교수와 아동학 전공자 3인을 통해 검증받았고 신뢰도는 Cronbach의 α 계수를 이용하여 검증했는데, 귀인양식의 긍정적 차원은 신뢰도 계수 α=.65이고 귀인양식의 부정적 차원은 α=.61 이였다.

3) 학업 성취

본 연구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의 안정적인 학업 성취로서 1992년 1학기 동안 학교에서 실시한 모든 학습평가의 전과목 평균을 사용하였다.

4. 조사절차

질문지 작성시에는 이름을 기입하지 않도록 하여 익명성을 보장하는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응답하게 하였고, 수거할 때 번호순으로 걷어 연구자가 번호를 표시하였다. 또한 학업성취 점수는 담임 교사로부터 제공 받았다.

5. 자료의 분석

이 연구에서는 SPSS/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를 처리하였다. 자료분석에는 평균, 표준편차, 백분율, 빈도분포, t검증,일원 변량 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고, 통계적 상호작용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다원 분산 분석(multi-way ANOVA)을 실시하였다.

V. 研究結果 및 解釋

1. 兒童과 靑少年의 特性에 따른 憂鬱性向

1) 年齡에 따른 憂鬱性向

먼저, 아동과 청소년의 우울점수는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우울점수를 연령에 따라 각각 t-검증 하였다.

〈표 V-2〉 연령에 따른 우울 점수

N=574 (SD)

연령 / 우울	국 5	중 2	t 값
우울점수	16.33(6.77)	17.47(6.88)	-2.00*

* P<.05

그 결과, 우울점수는 아동과 청소년의 연령에 따라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성향의 하위영역별로 우울점수를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 행동장애와 자기비하의 영역에서 중2 집단의 우울 점수가 높았으며 P<.01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표 V-3〉 연령에 따른 우울의 하위영역별 점수

N=574(SD)

연령 / 우울	국 5	중 2	t 값
우울정서	2.98 (1.58)	3.05 (1.58)	-.53
행동장애	4.27 (1.90)	4.67 (1.80)	-2.57**
흥미상실	4.38 (2.53)	4.63 (2.27)	-1.23
자기비하	2.09 (1.54)	2.47 (1.64)	-2.83**
생리적 증상	2.59 (1.61)	2.44 (1.59)	1.14

** P<.01

2) 性別에 따른 憂鬱性向

아동과 청소년의 우울성향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우울성향을 성별에 따라 각각 t-검증 하였다.

〈표 V-4〉 성별에 따른 우울점수

N=574(SD)

우울점수 / 집단	국 5 M	중 2 M	전 체 M	t 값
남 학 생	16.06 (6.33)	16.68 (6.33)	16.62 (6.64)	1.07
여 학 생	16.47 (7.10)	17.75 (6.89)	17.23 (7.03)	

위의 표 V-4에서처럼, 여학생의 평균 우울점수는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아동과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성별에 따른 우울의 하위영역별 점수를 살펴보면, 우울정서가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성차를 보이면서 여학생의 우울정서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표 V-5〉 성별에 따른 우울의 하위영역별 점수

N=574 (SD)

성별 / 우울	남	여	t값
우울정서	2.77 (1.53)	3.26 (1.60)	3.70***
행동장애	4.44 (1.82)	4.51 (1.90)	.39
흥미상실	4.53 (2.33)	4.49 (2.47)	-.22
자기비하	2.22 (1.57)	2.34 (1.63)	.86
생리적 증상	2.39 (1.56)	2.63 (1.63)	1.82

*** P<.001

3) 母의 教育水準에 따른 憂鬱性向

아동과 청소년의 우울성향이 모의 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일원 변량분석을 하였다. 이때, 모의 학력은 중졸이하, 고졸 및

〈표 V-6〉 母의 교육수준에 따른 우울점수

N=574(SD)

	모 의 학 력			
	중졸이하	고 졸	대졸이상	F
우울점수	17.75 (6.09)	16.65 (6.52)	15.78 (6.25)	3.49*
우울정서	3.07 (1.54)	3.00 (1.53)	2.93 (1.54)	.32
행동장애	4.57 (1.83)	4.48 (1.79)	4.27 (1.78)	1.20
흥미상실	4.84 (2.16)	4.54 (2.35)	4.17 (2.44)	3.17*
자기비하	2.54 (1.55)	2.27 (1.56)	2.03 (1.54)	3.99*
생리적 증상	2.77 (1.56)	2.40 (1.60)	2.39 (1.53)	2.54

* P<.05

대졸 이상의 3집단으로 나누었다.

그 결과, 아동과 청소년의 우울성향은 모의 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우울의 하위영역중 흥미상실, 자기비하가 모의 학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모의 학력이 낮을수록 우울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모의 학력이 자녀의 우울에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다.

2. 아동과 청소년의 우울성향과 귀인양식

연구문제 2는 아동과 청소년의 우울성향에 따라 귀인양식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울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X<M-SD인 경우는 하집단, M-SD<X<M+SD인 경우는 중집단, M+SD<X인 경우는 상집단으로 구분하였다.

1) 우울성향과 귀인의 내외성 차원

성공과 실패 상황에서 아동과 청소년이 우울할수록 나타내는 귀인을 내외성 차원에서 알아보기 위하여 두 가지 상황별로 우울성향에 따라 각각 일원변량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성공과 실패 상황에서의 내외성 차원 귀인점수는 아동과 청소년의 우울성향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므로 〈가설 2-1〉은 지지되었다.

〈표 V-8〉 우울성향에 따른 귀인의 내외성 차원

N=574(SD)

우울 집단 / 귀인	하	중	상	F
실패-내적	3.99 (1.47)	4.51 (1.78)	4.84 (1.86)	6.16**
성공-내적	4.62 (1.60)	3.85 (1.67)	3.19 (1.60)	19.05****

** P<.01 **** P<.0001

〈표 V-8〉에 의하면 아동과 청소년이 우울할수록 실패사건에는 내적으로 귀인하였고, 성공사건에서는 외적으로 귀인하였다. 우울성향에 따른 내외성 차원 귀인 점수는 실패사건에서는 P<.01 수준에서, 성공사건에서는 P<.0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우울한 아동과 청소년들은 학교와 가정생활에서 부딪치는 실패의 원인을 자신의 내부적 요인 때문이라고 생각하였고 반대로 성공적인 결과의 원인은 자신의 외부적 요인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2) 우울성향과 귀인의 안정성 차원

성공과 실패 상황에서 아동과 청소년이 우울할수록 나타내는 귀인을 안정성 차원에서 알아보기 위하여 두 가지 상황별로 우울성향에 따라 각각 일원변량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성공과 실패 상황에서의 안정성 차원 귀인점수는 아동과 청소년의 우울성향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므로 〈가설 2-2〉는 지지되었다.

〈표 V-10〉 우울성향에 따른 귀인의 안정성 차원

N=574(SD)

우울 집단 / 귀인	하	중	상	F
실패-안정적	1.99 (1.50)	2.66 (1.35)	3.97 (1.55)	27.06****
성공-안정적	5.13 (1.67)	4.67 (1.73)	3.47 (2.06)	10.92****

**** P<.0001

〈표 V-10〉에 의하면 아동과 청소년은 우울할수록 실패사건에서 안정적인 원인에 귀인하였고, 성공사건에서는 가변적인 원인으로 귀인하였다. 우울성향에 따른 안정성 차원 귀인 점수는 실패사건과 성공사건에서 P<.0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3) 우울성향과 귀인의 일반성 차원

성공과 실패 상황에서 아동과 청소년이 우울할수록 나타내는 귀인을 일반성 차원에서 알아보기 위하여 두 가지 상황별로 우울성향에 따라 각각 일원변량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성공과 실패 상황에서의 일반성 차원 귀인점수는 아동과 청소년의 우울성향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므로 〈가설 2-3〉는 지지되었다.

〈표 V-12〉에 의하면, 아동과 청소년은 우울할수록 실패사건에서는 일반적인 원인에 귀인하였고, 성공

〈표 V-12〉 우울성향에 따른 귀인의 일반성 차원의 점수

N=574(SD)

우울집단 / 귀인	하	중	상	F
실패 - 일반적	1.66 (1.51)	2.30 (1.50)	3.47 (1.49)	38.79****
성공 - 일반적	4.28 (1.58)	3.37 (1.55)	2.66 (1.29)	28.69****

**** P<.0001

사건에서는 특정적인 원인으로 귀인하였다. 우울성향에 따른 일반성 차원 귀인 점수는 실패사건과 성공사건에서 P<.0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우울한 아동과 청소년들은 학교와 가정생활에서 부딪치는 실패의 원인이 모든 장면에 적용된다고 생각하였고, 반대로 성공의 원인은 특정한 장면에만 적용된다고 생각하였다.

연구문제 2의 세가지 가설을 통해 우울한 아동과 청소년은 실패 사건에는 내적, 안정적, 일반적인 원인에 귀인하고 성공 사건에는 외적, 가변적, 특정적 원인에 귀인하는 부적응적인 귀인양식을 가지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4. 아동과 청소년의 우울성향과 학업성취

연구문제 3은 아동과 청소년의 우울성향에 따라 학업성취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표 V-15〉에 의하면 국민학교 5학년의 경우 우울할수록 낮은 학업성취를 보였고 중학교 2학년의 경우에도 우울할수록 낮은 학업성취를 나타내었다. 우울성향에 따른 학업성취 점수는 P<.0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V-15〉 우울성향에 따른 학업성취

N=574(SD)

우울집단 / 학업성취	하	중	상	F
국 5	88.24 (8.22)	84.37 (8.03)	79.40 (13.02)	11.77****
중 2	74.62 (15.15)	71.39 (14.51)	62.60 (14.81)	10.04****

**** P<.0001

Ⅵ. 結論 및 論議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아동과 청소년의 우울성향은 연령에 따라 다르다. 이 연구에서는 중2 집단이 국5 집단에 비해 전반적인 우울점수가 높다. 한편 우울의 하위영역별로는 행동장애, 자기비하의 영역에서 중2 집단의 우울 점수가 높았고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기 후기부터는 낮은 자존감과 자기비하가 나타나며 청소년기에는 반 사회적 성격이나 비행등이 우울증에 흔히 동반된다 (DSM-III-R, 1987)는 우울증상의 연령에 따른 특성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둘째,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우울을 더 많이 경험하나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는 없다. 우울의 하위영역인 우울정서, 행동장애, 흥미상실, 자기비하, 생리적 증상의 점수중 우울정서만이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외로움과 슬픈기분을 더 많이 느끼고 더 자주 울고싶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째, 모의 교육수준에 따라 아동과 청소년의 우울성향은 다르다. 아동과 청소년은 모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우울점수가 높게 나타나므로 모의 학력은 자녀의 우울성향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애정 ,수용적이며 민주 자율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는 반면 학력이 낮을수록 거부적이고 강제적인 양육태도로 자녀를 대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넷째, 우울한 아동과 청소년은 실패 사건에는 내적, 안정적, 일반적인 원인에 귀인하고 성공 사건에는 외적, 가변적, 특정적 원인에 귀인하는 부적응적인 귀인양식을 가진다. 이는 Abramson등(1978)의 수정 학습된 무력감 모델에 일치하는 결과이며 우울한 아동과 청소년도 우울한 성인과 동일한 인지적 손상을 나타낸다는 기존 연구결과를 확인해준 것이다. 우

울한 아동과 청소년이 부적응적인 귀인양식을 보이는 것은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우울한 아동과 청소년은 우울이 동반하는 도구적 행동의 결손으로 인해 학업성취나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반복된 실패를 경험하게되고 이러한 반복된 경험을 통해 나쁜 사건은 내적, 안정적, 일반적 원인으로 야기된다고 확신하게 된다. 또한 우울정서의 편향 정보처리 경향은 경험하는 사건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과 해석을 더 많이 하도록 유도한다.

끝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우울성향에 따른 학업성취를 살펴보면 국민학교 5학년의 경우 우울할수록 낮은 학업성취를 보이고 중학교 2학년의 경우에도 우울할수록 낮은 학업성취를 나타낸다. 즉 우울한 정서는 자존감의 저하를 가져와 학업성취에 대해 낮은 기대를 하게 되며 우울의 주요한 증상인 도구적 행동의 감소와 집중곤란으로 인해 낮은 학업성취를 형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동과 청소년이 우울할수록 낮은 학업성취를 보인다는 이 연구의 결과는 수행력의 감소가 실험실 과제 뿐만이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나타남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학 진학이나 제반 사회적 지위가 학업성취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우리 사회 현실 속에서, 낮은 학업성취는 커다란 스트레스원과 좌절이 되어 우울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울과 귀인양식과의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닌 양방적인 순환관계로 이해해야 될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많은 아동과 청소년이 우울을 경험하며 우울한 아동과 청소년은 학교나 가정에서 경험하는 성공과 실패사건들에 대해 우울한 성인과 동일한 부정적인 귀인양식을 보이고 낮은 학업성취를 나타냄을 밝혔다. 그리고 연령과 모의 학력에 따라 우울성향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밝혔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이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전제로 해석되어야 한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자기 평정 질문지를 이용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우울성향을 조사하였다. 비록 이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CDI)가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타당도와 신뢰도가 충분히 높다는 것은 입증되었지만 질문지를 통해 우울성향을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전문가와의 면접이나 관찰법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연구는 국민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만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모든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일반화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표집대상을 국민학교 저학년과 고등학교 연령층까지 포함하여 인지능력이 증가함에 따라 우울성향과 귀인양식 및 학업성취간의 관계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연령층의 후속연구가 요망된다.

비록 위와같은 제한점이 지적될 수 있으나 이 연구는 우리나라 아동과 청소년의 우울성향에 관한 자료가 부족한 실정에서 우울성향이 학교나 가정의 실생활에서 부딪치는 사건에 대한 귀인양식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처음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우울성향이 아동과 청소년의 부적응적인 귀인양식과 낮은 학업성취와 관계가 깊다는 결과는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겪는 정서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를 마련했고 모의 영향과 우울성향 발달과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자녀의 정서적인 문제에 대한 모의 중요성을 시사하였다. 이 연구는 부모나 교사가 우울을 경험하는 아동과 청소년을 이해하며 우울의 예방과 경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도와 상담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參考文獻】

1) 김선경 (1988). "우울성향과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 및 자아개념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 오경자, 이혜련, 임양화(1991). "청소년의 정서 및 행동문제 특성". 소아정신건강 12월 3호.

3) 오혜영 (1981). "성취 결과에 대한 인과적 귀속과정과 자아개념과의 상호관계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4) 임양화 (1989). "우울한 아동의 귀인모형".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5) Abramson, L. Y., Seligman, M. E. P., & Teasdale, J. D.(1978). "Learned helplessness in humans : critique and reformulation" *J. of Abnormal Psy-*

chology, 87, 49-74.

6)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1987).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DSM Ⅲ(Rev. 3rd ed)*, Washing, D. C.

7) Asarnow, J. R., Carson, G. A.(1985). "The depression self-rating scale : Utility with child psychiatric inpatients" *J.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gy*, 54, 491-499.

8) ———, ———, Guthrie, D.(1987). "Coping strategies,self-perception, hopelessness and perceived family environment in depressed and suicidal children" *J.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5, 361-366.

9) Curry, J. F., & E. Craighead.(1990). "Attributional style in clinically depressed and conduct disordered adolescents" *J.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8(1), 109-115.

10) Jacobson, S., Fasman, J., & DiMascio, A.(1975). "Deprivation in the childhood of depressed women". *J.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60, 5-14.

11) Kaslow, N. J., Seligman, M. E. P, Tanenbaum, R. L.(1978). "The KASTAN : 삽A children's attributional styles questionnaire"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Pennsylivania.

12) Kaslow, N. J., Tanenbaum, R. L., Abramson, L. Y., Peterson, C., & Seligman, M. E. P. (1983). "Problem-soloving deficits and depression symptoms among children" *J. of Abnormal Child Pshchology*, 11, 497-502.

13) ———, Rehm, L. P., & Siegel, A. W. (1984), "Social-cognitive and cognitive correlates of depression in children" *J.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2, 605-620.

14) ———, ———, ———, Pollack.(1988). "Attributional style and self-control behavior in depressed and nondepressed and their parents" *J. of Abnormal Child Pshchology*, 16, 163-177.

15) Kovacs, M.(1981). "Rating scales to assess depression in school-aged children", *Acta Paedapsychiatrica*.

16) Kuiper, N. A.(1978). "Depressive and causal attribution for success and failure" *J.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 236-246.

17) Nolen-Hoeksema, S., Seligman, M. E. P., & Girgus, J. S.(1989). "Sex defferences in depression and explanatory style in pre-adolescents" Unpublished manuscript.

18) Puig-Antich, J., Lukns, E., Davies, M., Goetz, D., Brennan-Quattrock, J., & Todak, G.(1985). "Psychosocial functioning in prepubertal major depressive desorders" *Archives of General Psycyiatry*, 42,500-507.

19) Rutter, M, & Garmezy, N.(1983).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In a P. Mussen(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4th ed)*, Vol. 4, 775-911.N.Y. : Wiley.

20) Seligman, M. E. P., Peterson, C., Kaslow, N. J., Tanenbaum, R. L., Alloy, L. B., & Abramson, L. Y.(1984) "Attributional style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children" *J. of Abnormal Psychology*, 93, 235-238.

21) Tesiny, E. P., Lefkowitz, M. M., & Gordon, N. H.(1980) *J.of Educational Psychology*, 72(4), 506-510.

22) Ward, L. G., Friedlander, M. L., & Silverman, W. K.(1987). "Children's depressive symptoms, negative self-statements, and causal attributions for success and failure"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1(2), 215-227

23) Weissman, H., & Klerman, G.(1977). "Sex differenes and the epidemiology of depression" *Archives of General Psycyiatry*, 34, 98-111.

24) ———, & Meyers, J. K.(1978). "Affective disorders in a U.S. Urban community" *Archives of General Psycyiatry*, 35, 1304-1310.